



## 관내 동향

### □ 사천시-경남도 합동 항공우주청 설치 실무 T/F팀 활동

-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설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‘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실무 특별팀(TF)’을 구성하고 5월 31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.
- 특별팀은 경남도, 경상국립대학교,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, 경남테크노파크, 경남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 등 13개사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었다.
- 위원장은 경남도 제조산업과장과 사천시 항공경제국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4개 전문분과로 나눠 운영된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, 유사기관 설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항공우주청 설치 준비를 위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특별팀은 향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가지고 항공우주청 설치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.

### □ 사천시-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, 항공우주산업 우호교류

- 지난 14일 말레이시아 투자유치대표단이 사천시를 방문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.
- 대표단은 셀랑고르 주의 수석행정의원, 투자개발청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.
- 이번 방문은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사천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.
- 한편 셀랑고르 주는 2020년 기준 말레이시아 GDP의 24.3%의 기여도를 가진 항공산업 중심도시이다.

## □ KAI, 폴란드에 FA-50 수출 청신호

- 폴란드가 약2조원대에 이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경공격기 FA-50 48대 구매의사를 밝혔다.
-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공군이 옛소련제 미그-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대체 전력으로 FA-50 구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에 5월 31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KAI를 방문하였으며, 6월 6일에는 폴란드 육군·공군 평가단과 경제개발은행 등이 방한하여 FA-50 운영 부대를 방문하고 KAI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다.
- 이는 단일국가 수출로는 최대 규모이며 KAI는 이를 위해 '폴란드 수출 관리팀'을 신설하여 수출 성사에 노력하고 있다.

## □ KAI-록히드마틴 '원팀' 으로 미국 전술입문기 수주 공략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미국 전술입문기 수주 공략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협력합의서(TA)에 서명했다.
- 합의서에는 T-50 계열 항공기 1천대 이상 판매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,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FA-50의 전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업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하기로 했다.
- 미국은 오는 2024~2025년 280여대 규모의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고등훈련기·전술훈련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.
- 이에 양사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훈련기·경공격기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 위해 단일팀을 구성하고 협력 수준을 높였다.
- 만약 미국 수주전에 성공할 경우 KAI는 세계 최대 훈련기·경공격기 공급사가 되어 20년 이상 일감 확보가 가능하며 56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□ 켄코아, 대우건설과 'K-UAM' 실증사업 출사표

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'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그랜드 챌린지' 1단계 실증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.
- 이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사전 실증사업으로 내년에 1단계로 기체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부터 실제 도심에서 2단계 실증이 진행된다.
- 이에 켄코아는 아스트로엑스와 함께 2024년 완료를 목표로 2~3인용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(eVTOL)를 개발하고 있다.
- 아스트로엑스는 올 3월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 (PAV) 시험 비행에 성공한 회사로 켄코아는 자회사 켄코아에비에이션을 통해 지분 투자 중이다.



## 도내 동향

## □ 경남우주기업 매출과 종사자 수 대전보다 높아

- 경남연구원은 지난 2일 <항공·우주기업 실태와 중점 정책과제> 보고서를 내고 경남이 대전과 우주기업 수는 비슷하지만 매출과 종사자 수는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국내 우주산업 관련 기업 116개 중 경남에 21개(18.1%), 대전에 23개(19.8%)로 대전이 더 많다.
- 그러나 경남 21개 기업의 우주 관련 매출은 2,050억원으로 전국 23.4%, 종사자 수는 1만 5,454명으로 54.1%를 차지하고 있다.
- 반면 대전 23개 기업의 우주 관련 매출은 1,264억원, 종사자는 1,096명으로 경남이 각각 1.6배, 1.4배 높다.
- 특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수가 전국 기준 연평균 3.14% 증가한 데 비해 진주와 사천지역은 7.96%로 전국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.

## □ 경상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및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 개소

- 경상국립대학교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(ASRC) 및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(SCTRC) 개소식을 가졌다.
-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는 우주·항공·국방·미래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신설됐다.
- 또한 산·학·관·연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진주·사천 항공국가산단의 산학협력 전문 R&D 연구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.
-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위성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5년간 67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.
- 경상대는 이를 통해 30여 명의 석·박사급 핵심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## 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, 새단장 후 개장

- 경남 거창군은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을 관람객 중심 공간으로 새단장 했다.
-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원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.
- ‘우주인이 되어 우주를 경험하자’는 주제를 통해 스토리가 있는 관람동선을 구축하고 전시실을 우주선 및 우주공간과 유사하게 조성했다.
- 또한 로켓발사, 우주탐사 등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로 구현하는 등 참여형 전시콘텐츠로 관람객 중심 공간을 조성했다.
- 한편 거창과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‘2022 여행가는 달’을 맞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무료로 개장한다.



## 국내 동향

### □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다가서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,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,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 촉진, 우주 분야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이다.
-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8월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하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본 개정안은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.

### □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, 국내 민간 첫 시험발사체 공개

-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개발한 소형위성발사체 ‘한빛-TLV’를 공개했다.
- 한빛-TLV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을 탑재한 1단 로켓이다.
- 이노스페이스는 청주사업장에 이동식 통합발사시스템을 설치하고 발사 시스템 구동 및 기립 시연을 시작으로 본격 발사 준비에 착수했다.
- 이 발사체는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해 올해 12월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아우칸타라 발사센터에서 첫 시험발사 예정이다.
-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한빛-TLV에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(DCTA)의 관성항법시스템 SISNAV(시스나브)를 탑재체로 싣고 발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.



## 해외 동향

### □ LA에 초대형 항공우주센터 건립

- 우주왕복선 엔데버호가 전시된 것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 초대형 항공우주센터가 건립된다.
- 사무엘 오신(Samuel Oschin) 항공우주센터로 명명된 이 센터는 약 6만 평에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.
- 완공 후에는 엔데버호를 이곳으로 옮기고 대한항공에서 기부한 보잉 747 여객기 등 다양한 항공우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.
- 센터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2023년 하반기 개장 예정이다.

### □ 영화 '탑건' 후속편에 록히드마틴의 극초음속 전투기 등장

-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전투기 SR-72가 1986년 영화 탑건 후속편 '탑건-매버릭'에 등장한다.
-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맡은 주연 매버릭은 공군 테스트 파일럿이 되어 '다크스타'라는 이름의 전투기 시험 비행 임무를 맡아 마하10 속도로 비행한다.
- '다크스타'가 현재 록히드마틴이 개발 중인 전투기로 실제로는 내년에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.
- 다만 영화에서 전투기 실루엣과 조종석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R-72를 모델로 록히드마틴과 영화제작사가 함께 작업한 것이다.
- 한편 SR-72는 '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비행기'로 불린 SR-71 블랙버드의 후속 모델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정찰기이다.

작성일	2022. 6. 15.(수)	보고일	2022. 6. 16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1)